

성인의 라이프스타일과 표준인지, 표준중요성 인지가 표준활동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주연¹, 김예은²

¹ 고려대경제학과 교수, jjooyeon@korea.ac.kr

² 성신여자대학교 석사, yeeunmon@gmail.com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n Activity Decision of Standard By Adult's Life Style, Recognition And Importance of Standard

Jooyeon Jeong¹ and Yeeun Kim²

¹ Prof. Dept. of Economics, Korea University

² M.S. Dept. of Living Culture and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17-1-19 접수; 2017-9-12 수정; 2017-9-13 채택)

요 약

본 연구는 어떤 사람이 표준활동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표준활동의사의 적극성에 영향 미치는 변수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표준에 대한 인지, 표준중요성인지, 표준활동의사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들 변수들 간의 영향력을 공변량구조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 이공계열 출신의 응답자가 표준에 대해서 더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이 201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인 경우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 수준이 높았다. 표준활동의사는 남성, 이공계전공자의 경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변량구조분석 결과 합리성추구를 하는 국민일수록, 가족중심생활을 하는 국민일수록, 사회참여 생활을 원하는 국민일수록, 개성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국민일수록 표준에 대해서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합리적인 생활을 추구할수록, 가족중심의 생활을 할수록,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클수록 표준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 한편, 표준에 대해 더 많이 인지하고 있을수록 또한 표준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이 인지하고 있을수록 표준활동의사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키워드: 라이프스타일, 표준인지, 표준중요성인지, 표준활동의사, 표준지식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influencing factors on activeness of mind of standard activity to know who participate actively on mind of standard activity. This study concretely investigated influencing factors on recognition of standard, need of recognition of standard, and mind of standard activity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feature. Also, this study tested influence between variable by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an, and science and engineering major recognized the need of standard more. Man who has between 2,010,000won and 4,000,000won household income highly recognized the need of standard. On the mind of standard activity, man, and science and engineering major were active.

Third, As the result of the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intellectualizer, family-centred man, social participation man, and living distinct individuality man recognized more about standard. Also, intellectualizer, family-centered man, and social participation man recognized more about need of standard. However, man who recognize on standard, and man who recognize on need of standard had high desire on standard activity.

Last, group who has high level of knowledge of standard did not recognize need of standard specially the family-centered man, but living distinct individuality man recognize need of standard. In the opposite side, the family-centered man in group who has low level of knowledge of standard had recognition of standard, and living distinct individuality man in this group did not recognized about standard.

Key words: life style, recognition of standard, need of recognition of standard, mind of standard activity, knowledge of standard

1. 서론

표준이란 사람들 간의 편의, 효율, 그리고 안전을 위한 서로간의 약속이다. 표준화는 표준을 만들고 준수하는 활동 즉 표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활용하는 조직적 행위를 말한다. 일반 국민에게 밀접한 표준은 국민의 권익, 특히 국민안전, 건강, 품질 등 소비생활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

표준이다. 국민이 표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표준화가 국민의 복지실현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표준은 과학, 기술, 경험의 통합적 결과에 기초하여 기업, 국가,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작업이며 표준은 최종적으로 국민이 활용함으로 중요하다. 이 같은 이유에서 민간 국민이 참여하는 표준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 결과 최근 표준화가 제품과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어린이안전, 소비자안전 등 국민의 질적인 삶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표준정책은 산업표준, 기술표준 등에 보다 초점을 두어 왔다. 한국에서 국가표준은 KS표준으로 그 대상 범위와 지정요건을 정해 두고 있다. 제품표준의 경우 품질 식별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국민 보호를 위하여 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광공업품,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광공업품, 독과점 품목/가격변동 등으로 현저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광공업품으로 규정하고 있다[1]. 한편, 서비스의 경우 국민의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조업 지원 서비스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국가 정책적으로 서비스품질 향상이 필요한 경우 표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생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 분야, 서비스 분야의 표준은 부족하다[2].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 관련 표준이 필요하다. 최근 국제표준화기구 및 선진국의 표준화 작업이 수요자중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표준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이 같은 국제적 트렌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표준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민이 일상의 삶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의 표준이 중요하므로 이 분야의 국민 관심 및 국민의 표준 활동에의 참여가 중요하다. ISO에서는 최근 요금청구제도, 제품리콜, 개인정보보호, 어린이 안전, 제품이나 식품안전 등의 생활표준화 성과가 있었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생활을 위해 수년전부터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청소기용 종이백, 휴대폰 자판 등에서 표준화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국민 편의증진, 사회적 자원(인력, 기술, 시장)의 합리적 배분 등의 성과가 있다.

일본에서는 각 소비자단체 등 민관이 협력하여 국민의 표준화 참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벤치마킹 할만하다.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국민의 표준화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본 규격협회(JSA)

내에 2008년 소비자 관련 표준사무소(Consumer-related standardization office)를 설립하였다. 이 기관에서는 안전, 활용성 및 접근성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JIS(일본국가표준)작성에 반영하고 국민 의견이 반영된 JIS를 국제표준화(NP)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JSA는 국민의 의견 및 니즈를 표준화에 반영시킬 수 있는 인재 육성, 국민으로서 표준화를 이해 시킬수 있는 다양한 세미나 등의 개최, 표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작성방법 관련 교육이나 지원, 국민들에게 표준화의 의의를 보급할 수 있는 인재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ISO(국제표준화기구)는 표준제정시 저개발 국가의 참여, 전 세계 민간인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ISO가 표준화 분야를 품질 및 신뢰, 안전 및 건강, 제품간 호환성, 서비스 전달의 일관성, 제품 및 서비스 선택 문제, 제품정보의 투명성, 공정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 사회취약 계층에 적합한 제품,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일반민간 세계인 등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표준에 대한 국민과 기업, 국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수행된 표준 관련 연구는 대부분 국가기술표준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들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준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표준화의 경제적 효과, 표준화 사례연구, 기업의 표준화활동 지원도구 개발, 표준 인증 관련 연구 등이다[3],[4],[5],[6]. 그러나 민간 국민의 표준에 대한 인지, 표준활동의사 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된 바 없으며, 또한 생활표준, 서비스 표준과 관련한 연구 및 조사 역시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허경옥은 표준현황 및 수요조사와 국민, 기업,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표준정책의 활성화방안을 제안하였다[7]. 그는 표준 관련 기관 및 정부에서는 표준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표준교육 및 홍보, 표

준화 활동전략 등 표준정책의 연구기반 마련 연구, 표준의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영, 국제 표준 분야로의 진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국제사회 표준 분야에서 한국의 적극적 활동지원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수행된 표준활동의사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는데 민간 국민의 표준에 대한 인지, 일반 국민의 표준 활동 연구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바 없는 일반 성인의 표준에 대한 인지도, 표준 활동 등에 대해 분석 함으로써 연구주제 면에서 독창적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표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 표준 활동 현황을 조사였다. 둘째,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적 면접조사를 수행하여 표준인지, 표준 중요성인지, 표준 활동의사가 성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어떤 특성을 가진 성인이 표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지, 표준의 중요성 인지를 높게 갖고 있는지, 어떤 성인이 표준 활동의사에 적극적인지를 조사하였다. 셋째, 성인의 라이프 스타일, 표준인지, 표준중요성 인지가 표준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공변량 구조분석을 통해 조사한다. 이때, 표준지식과 생활표준의 필요성 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표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 대부분의 표준화정책이 사업자, 생산자, 기술이나 산업 분야에 치중하고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수요자 즉 국민의 표준 활동에 초점을 두고 표준에의 민간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전환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민간 성인의 표준 관련 인식, 표준 활동의사 등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표준 활동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여 국민의 표준에의 참여 촉진 등 표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자 한다. 궁극

적으로 본 연구는 표준에의 민간참여를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수요자 지향적 표준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표준화예의 국민참여

표준은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공통의 규범을 제공하여 공정한 사회, 편리한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므로 일반 국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그러나 표준화 작업, 표준 활동에 민간 국민의 참여가 부족하였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은 물론 기업 그리고 정부의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표준화가 우선적 정책 대상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선진 국가와 비교할 때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으로 국민이 주도하는 표준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표준 관련 체계적인 전문가양성, 사회적 관심 및 합의도출, 표준 정보시스템 구축 및 효과적 활용, 세계 표준 무대에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 변화하는 표준환경에 대한 대응전략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공급자 중심 그리고 산업 중심의 표준개발 및 표준정책으로 생활 분야의 수요자 지향적 표준정책이 시행되지 못해 이와 관련한 노하우 및 정보축적이 부족하다. 수요자 중심의 표준기반 확대, 국민 편의형 표준, 맞춤형 표준정보 제공·활성화 등 표준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표준제정 및 활용 등에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였다. 아직까지 표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국민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표준정책 및 표준화부분에서 민간 참여부족 및 민간과 정부의 협력이 부족하였으므로 향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조치 등을 강화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생활 밀착형표준, 삶에서 주로 접하는 서비스 부분의 표준화, 사회 안전·보안 표준화, 공공·행정 표준화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넷째, 소비제품, 서비스 분야, 생활 분야 표준의 연구조사가 부족하였다. 최근 국민이 쉽게 접하는 소비용품, 생활서비스 분야의 표준이 중요하다는 것이 조금씩 인식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의 연구 및 조사가 적극 수행되어 앞으로 수요자지향적 표준환경을 정착시켜야 한다.

2.2 표준의 조건과 표준화 원칙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표준의 조건은 크게 4가지 이다. 첫째, 표준은 과학, 기술, 경험의 통합적 결과에 기초하여 보다 나은 것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표준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즉 지역사회 최적의 혜택을 촉진시켜야 한다. 셋째, 표준은 국민이 활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넷째, 표준은 넓다는 것이다. 즉 표준은 국제적 관련성이 있고 글로벌 표준이어야 한다.

한편, 표준화의 원칙은 크게 5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문제의 해결 결과는 반드시 표준으로 남긴다. 즉 DATA 표준, 프로세스 표준(순서, 방법), 시스템 표준(상호간 연계)에 대해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사용자 위주로 내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한다. 셋째, 표준 제정·개정시에는 반드시 관련 부문에 공지, 교육하여 준수·가능토록 한다. 넷째, 자체적인 점검활동으로 표준준수와 최적의 표준상태를 유지한다. 끝으로 문제 발생시에는 반드시 표준을 가지고 검토하여 그 결과를 표준에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표준화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은 잘못된 경우가 많다. 많은 경우 일반 국민은 표준을 잘 지

키고 있다고 생각하며 경험에 의해 표준을 다 알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표준은 형식적인 문서라고 생각하며 일일이 표준을 보면서 작업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불량이 발생하면 표준보다 현실적 조치가 우선이라고 인식한다. 또한 표준대로 작업하면 불량증가가 우려되며, 바빠서 표준을 볼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다. 게다가 표준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끝이라는 인식이 많다. 그러나 표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과 지식 그리고 표준 관련 이해도는 높다고 보기 어렵다(7).

2.3 정부의 민간표준참여 촉진 정책

오랜 기간동안 우리나라 국가 표준은 산업육성 중심으로 추진되어 수요자 중심, 민간의 표준화는 미흡하였다. 국가표준은 1962년 KS제도를 도입하여 기술표준, 산업표준 형태로 규정되어 산업계에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국민행복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국민 모두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표준정책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민 관점의 불편 해소 및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한 표준화 정책을 통해 국민편익증진 추구가 표준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이 편리하고 행복하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표준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수년전부터 표준화추진협의회를 발족하여 생활 속에서 표준화에 대한 의견을 보다 쉽게 제안하고 이를 표준화시키는 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최근 휴대폰자판, 배터리, 매운맛 등급, 교통카드 표준화(전국 호환) 등의 성과가 있었다.

최근 정부의 민간표준 정책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가표준기본계획(2011-2015)에서 국민행복표준화를 중점 추진해 왔다. 주요 추진과제는 생활공감형 표준화, 서비스 표준화, 공공표준화, 행정 표준화 등이었다. 고령화사회, 국민들의 높아

지는 삶의 표준(standard of living),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의 삶의 복지, 다문화 및 탈북자 등 다양한 계층 등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삶의 질과 연관된 표준정책을 수행해 왔다.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공감 표준화에서, 사회적약자 배려 및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민행복가치 중심의 표준화 기반활동 추진이 필요하므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국민행복표준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50대 표준화(2009년), 3대 분야 40개 국민행복표준(2013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2). 특히 최근 국민행복표준화라는 슬로건으로 국민생활 불편해소, 사회적 약자배려, 삶을 질 향상을 위해 국민제안을 통해 표준화과제를 발굴, 표준화 확대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의 생활 분야 표준과제 개발은 그동안 표준화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국가표준을 개선하는 사회적 통합의 표준을 추구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표준을 편리한 사회, 건강한 사회, 미래사회 등 3대 분야로 구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편리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 분야는 가전전용 리모컨 표준화, 모바일기반 금융거래보안 표준화 등 국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표준화와 장례식장, 결혼식장 서비스와 같이 우리사회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표준화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건강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시설과 방법자재 성능기준 표준화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고령자·장애인용 생활제품표준화, 건강한 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의료기기 표준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미래사회를 위한 표준화 분야는 서비스용 로봇 성능기준 표준화,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표준화 등의 첨단기술에 대한 표준화 뿐 아니라 자원절약을 위한 휴대폰 배터리 표준화, 음식 1인분 표준화 등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일반 국민의 표준참여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서 우리나라 KS표준의 제정·개정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표준제정이나 개정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안하여 표준을 제·개정하는 경우로 학회, 연구소 등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초안을 작성하는 경우, 둘째, 개인, 기업, 관련 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표준을 제·개정하는 경우이다. 이 두 방법으로 작성된 표준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관보 및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함으로써 한국산업표준으로 확정된다. 한편, 표준제정의 수요, 즉 표준을 제안할 수 있는 주체로서 국민 개인, 단체 등도 표준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일반 개인은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에서 표준을 제안할 수 있다. 국가표준을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홈페이지에 표준화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표준제정의 참여에 대해 알고 있는 국민이 많지 않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표준화추진협의회에서는 표준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 민간제안 표준화 등을 위해 생활표준화로 제안하고 싶은 분야, 표준화되지 않아 불편한 사례와 표준화 추진 시 예상되는 장벽 등에 대해 관련 부처와 개선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2010년 생활표준 50대 과제 선정, 표준화 사이트 운영, 표준 협의회 운영 등의 성과가 있었고 온라인 및 설문조사에서 나온 표준 제안을 심의하여 11개 표준화 과제를 선정 한 바 있다(국민행복표준 인터넷사이트). 그 이후에도 민간국민이 생활표준화 사이트(www.lifestandard.or.kr)에 표준개발을 제안한 것을 토대로 표준화 과제를 선정하고 있고 생활표준화 체험수기 공모전 실시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 국민 입장에서 표준 발굴과정에 참여하기 어렵고 표준과제 참여에 대한 홍보가 널리 되지 않아 표준화과정에 참여하는

표 1. 2013년 국민제안 생활표준 과제

	과제명	과제 개요
1	항공제품 항공성능 표준화	물티슈, 섬유탈취제 등 제품 등에 '항공이 된다'는 문구가 쓰여 있지만, 국민 관점의 항공 성능 신뢰도를 위한 시험방법, 인증표시 등 표준화 필요
2	얼굴크기에 따른 얼굴팩 사이즈 표준화	얼굴팩은 별도 사이즈 없이 1가지로 출시되고 있어 어린이, 성인 남녀 등에 따른 얼굴크기 및 형태별 표준화 추진 필요
3	AS서비스인증 표준화	기업들마다 제품의 A/S형태, 방법 등이 제각각이며 A/S에 대한 불만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국민 신뢰를 위한 AS서비스인증제 도입 필요
4	가스레인지 불세기 표준화	가스레인지의 경우 중량, 크기 등의 정보와 가스 소비량만이 명시되어 있고 불의 세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1~3단계 등 단계별 불의 세기에 대한 표준화 필요
5	인조잔디 화재안전 표준화	최근 실내에도 활용되고 있는 인조잔디에 대한 화재피해 최소화화를 위해 화재안전성능 평가표준 개발이 필요
6	버스 손잡이 표준화	어린이들의 경우 주로 키가 작아서 버스 손잡이를 잡기가 어려워 기동형 손잡이 설치 등에 대한 지침 및 표준화 필요
7	커피컵 사이즈 표준화	커피숍별로 컵 사이즈에 대한 기준(small, regular등)이 달라 업체별 컵사이즈 및 적정용량 표기에 대한 표준화 필요
8	비상대피유도등 표시 표준화	현재 비상대피유도등의 그림문자 피난방향에 대한 오해소지가 있어 대피유도등 표시방법에 대한 표준화 필요

출처: 심준섭, 김지수, 윤태섭(2014)의 내용을 저자가 재정리함[2]

표 2. 2013년 국가기술표준원의 3대 분야, 40개 국민행복표준화 과제

3대 분야	표준과제명(협업부처)
편안한 사회	층간소음방지소재 성능 기준(국토교통부), 진공청소기 소음 최소화 기준, 세탁기 소음 최소화 기준, 레인지후드소음 최소화, 선풍기 단계별 바람세기 성능기준, 엘리베이터 승차감 평가기준(안전행정부), 차량용 네비게이션(운전중 DMB차단)(국토교통부), 자동차용 블랙박스 품질기준(국토교통부), 노트북 충전기 호환(미래창조과학부), 바이오 인식 응용서비스, 건축 에너지절감 단열소재 기준(국토교통부), 건물유리 및 창호 내풍압 성능기준(국토교통부), 네온사인 적정 조도 기준
함께하는 사회	전동휠체어 배터리 호환(보건복지부), 시각장애인용 디지털도서, 초보 및 고령자 운전자 차량표시마크(안전행정부), 가전제품의 장애인 접근성 향상(보건복지부),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 요구사항(문화체육관광부), 식기용 유리 유해물질 기준(보건복지부), 공공안내 및 안전그림 표시, 상조회 서비스기준, 공공장소 정보안내(문화체육관광부), 노약자·장애인용 화장실 비상벨 위치(안전행정부), 노약자·장애인용 전동휠체어(보건복지부), 노인복지관서비스 기준(보건복지부), 작업장, 공공구역의 안전색상 및 안전표시(문화체육관광부)
풍요로운 사회	의료복지 정보서비스(보건복지부), 음식점 밥 한 공기 적정용량(보건복지부), 한국인 인체치수를 고려한 의류치수 기준, 영화상영서비스 기준(문화체육관광부), 자동차보험서비스 기준, 스키장서비스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관광 안내 서비스 기준, 상해보험서비스 기준, 통역·번역서비스 기준, 겨울철 다운의류 품질기준, 기능성 의류(발열, 땀흡수 등)품질기준, 자동차정비서비스 기준, 자동차폐차서비스 기준, 중고자동차매매서비스 기준

출처: 심준섭, 김지수, 윤태섭(2014)의 내용을 저자가 재정리함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표준수요(국민) 제안을 통해 표준화과제를 선정하여 표준화를 추진하는 bottom-up 방식의 표준화 추진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불편해소 차원에 한정되

어 있으며, 신규과제 제안건 수의 지속적 감소 추세와 선정과제에 대한 표준개발 활동 미흡으로 표준화 이행확산 실적이 저조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3년간 국민제안 건수는 2010년 379건, 2011년 314건, 2012년, 86건으로 그 건수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행복한 사회를 위한 생활표준에의 국민 참여촉진

기반 조성, 이해관계자의 표준개발 참여를 촉진시키는 표준화 정책이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2.4 표준과 표준화에서의 민간 수요자 지향성

표준화 및 표준정책이 성공하려면 표준의 수요자인 국민, 표준 관련 단체나 협회, 기업 등 이해당사자들의 표준에 대한 관심이 전제되어야 하고 또한 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민간수요자들의 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 그리고 활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표준 수요자의 표준제정 분야 선정, 표준과정에서의 참여, 표준의 적극적 활용 등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표준이 필요한 분야는 어떤 것이며, 표준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및 조사, 표준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표준안을 제정하는 시스템구축 등이 시급하다.

수요자 관점에서의 표준화 및 표준정책 즉 표준정책의 수요자 지향성이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자/사용자 중심의 표준정책은 표준의 수요자인 국민이 필요로 하는 표준을 만들어 표준의 기본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기준이다. 즉 표준정책의 평가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수요자 친화적인 표준정책인가의 여부이다. 제품의 품질, 건강, 안전, 환경 등의 분야에서 표준은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표준의 공공재적 성격에서 유래하는데, 국민의 안전, 깨끗한 환경, 건강한 삶 등과 같이 국가·사회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표준은 올바른 길과 방향을 제시해 준다.

둘째, 수요자 지향적 표준은 사회적 합의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중요하다. 표준은 개발자, 생산자, 서비스 이용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소통하고 화합해 합의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므로 사회 전반에 공통된 규범을 제공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는 표준화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마시는 물속의 BOD, COD등을 측정하는 방법이 세계적으로도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지만, 표준은 하나의 공인된 시험방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줄 뿐 만 아니라 다른 시험방법이나 측정방법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함으로써 국민, 기업 등 이해당사자의 이익과 효율을 보장한다.

셋째, 수요자 관점의 표준은 기업의 표준정책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계 표준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게 된다. 기업이 사용자 편의형 표준을 개발하고 사용할 경우 수요자 중심의 해외 기술규제 시스템에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사용자편의 중심의 수출 기업 지원과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이 글로벌 국제사회에 적절한 대응이다.

넷째, 표준의 수요자 지향성은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의 경우 생활에 편리하도록 표준화시킬 경우 이는 관련된 제품·생산·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장에서 먼저 표준이 정해지는 소비용품의 표준은 기업경영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표준의 중요한 목적인 호환성의 경우 국민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론 기업의 생산 공정의 혁신, 신기술개발 촉진 등을 촉발한다. 표준화는 생산비용을 감소시키고 생산자 및 사용자의 학습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ISO에서도 표준 관련 활동이 수요자 지향적 성향을 띠고 있다. ISO는 표준개발 과정에서 ISO 회원 국가는 물론 국제국민기구(C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관련 국제기관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있다. 표준화 대상도 수요자 지향적인데 예를 들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편리함은 물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격차 없

는 표준, 세계 국가 간 화합을 추구하는 표준을 추구하고 있다. 게다가 ISO의 COPOLCO(소비자정책위원회)는 ISO 업무개발 및 방향 설정 과정에 수요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어 그야말로 수요자 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사례로써 전기전자 소비제품에 관한 표준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IEC와 공동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각종 지침서를 개발한 바 있다. 이 같은 일련의 ISO의 활동은 그야말로 표준의 정의, 방향, 의사결정방법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민 즉 수요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제품의 표준에서 환경, 사회적 책임, 서비스 표준에 이르기까지 적용범위를 크게 확대한 ISO의 최근 활동이 바로 표준의 수요자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ISO COPOLCO(Consumer Policy Committee)에서는 소비자정책, 서비스, 보호, 중고품, 제품안전 등 5개 작업반을 운영하고 있고 이 같은 국제표준화 활동에 민간인 참여 촉진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품리콜, 소비자제품안전, 노인·장애인·어린이 안전, 고객만족·불만처리 등의 표준화 개발에 민간 참여 및 민간인 대상 표준 교육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소비자단체의 ISO 활동에의 참여가 적극적이었는데 한국 소비자단체 소속 소비자운동가가 COPOLCO에서 회장을 역임하는 등 국제 표준사회에서 한국 민간인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¹⁾

2.5 세계의 국제표준 활동

표준화 관련 국제기구는 ISO의 COPOLCO(소

비자정책위원회) 표준사용자국제연맹(IFAN), 유럽 소비자표준화단체(ANEC), 아시아지역 소비자네트워크(ANCO) 등이 있다.

2.5.1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세계 지구인의 권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위한 표준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 표준화 기관인 ISO에서는 COPOLCO(소비자정책위원회; consumer policy committee)를 구성하여 민간인을 위한 국제표준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현재 ISO내에 COPOLCO는 정책개발 및 활동현황을 논의하는 기구로 미국, 영국 독일 등 99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ISO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정책 중점 분야를 지정하여 표준화를 추진(2013년 당시 23개 분야)하고 있다. ISO의 표준 중점 분야는 어린이용품, 사회안전, 제품안전, 나노기술, 식품안전, 서비스환경, 국제시장, 소비자기만, 사회적책임 등 23개 분야이다. ISO의 표준 활동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들의 활동이 다양한 범위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ISO 표준 개발에 전 세계 관련자 및 업계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ISO의 주요 표준 영역 범위는 제품 규제 및 시장조사 원칙과 관행, 제품 시험(ISO/IEC 17025), 제품 인증(ISO/IEC 17065), 제품적합성 표시(지침 23과 27) 등의 표준과 지침을 제공하는 ISO/CASCO 틀빅스가 있다.

최근 ISO의 생활 분야 표준화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 안전(어린이안전포장, 어린이가구 등), 제품안전, 식품안전, 나노기술, 관광 등 서비스, 물 공급,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제품, 서비스와 환경, 기후변화, 환경쟁점(친환경상품, 표시 등), 국민만족 기준(국민분쟁해결, 국민만족평가 등), 글로벌

1)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 ISO에 가입하였는데 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COPOLCO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소비, 식품과 비만, 약품 선진, 소비자신용과 부채 등, 지적 재산권, 경쟁정책, 언론활동능력, 내분비장애 약품안전 캠페인, GMO 변형 식품 표시, 아동보호, 에너지국민현장발전 등 다양한 주제의 국제표준 무대에서 한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별 시장에서의 국민 권익, 호환성, 네트워크 요금 청구제도, 제품 리콜, 개인정보 보호, 사회적 책임, 중고제품, 피임제, 화장품 등이다. 최근에는 ISO에서 위조품문제 표준(TC 247), 위조품 조사(ISO/IEC 17020) 등을 수행한 바 있다. 위조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조 및 사기 방지와 대응을 담당하는 ISO/TC 247을 구성하여 위조품 방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 및 국제 표준의 개발한 바 있다. ISO 국제표준은 위조 제품으로 인한 모든 유형 또는 무형의 피해와 손실을 비용대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어 전 세계 국민이나 소비자에게 중요하다. 표준은 위조품으로 인한 모든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위조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피해는 분명히 줄일 수 있다.

2.5.2 ANEC(European Consumer Voice in Standardization)

ANEC는 표준화에서 유럽 소비자의 목소리, 표준화 및 인증과정에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주로 어린이안전, 가전제품 및 디자인, 정보사회, 환경, 에코디자인, 서비스, 교통, 나노테크놀로지 등에 대한 표준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NEC는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필요한 표준화 작업개발에 활용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표준화위원회의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표준화위원회는 유럽 및 국제표준화 분야에서 유럽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2.5.3 IFAN(International Federation of Standards Users)

IFAN(표준사용자 국제연맹)은 1974년 11월 설립된 독립적인 비영리단체로써 표준적용을 위한 국가기관들의 국제적인 연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 표준의

사용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 기관은 국제간의 편차 없는 표준의 구현을 촉진하고 표준사용자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표준사용자의 관심과 의견을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에 반영하고 국제 및 지역기구(CEN, CENELEC, COPANT 등)와 협력하여 표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2.5.4 ANCO(Asian Network on Consumers's Participation in Standardization)

ANCO는 1906년 설립된 AP-COPOLCO 전신으로부터 말레이시아 및 일본의 협력하에 설립된 아시아지역 국민네트워킹이다. 이 기구는 참가국 간의 협력 및 연계강화와 아시아 지역 국민들의 AD표준화 활동에 대한 관심고조 및 참여를 강화시키고 있다.

III. 연구문제 및 자료분석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소비자의 표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라이프 스타일, 표준에 대한 인지, 표준중요성에 대한 인지, 표준활동의사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둘째, 라이프 스타일은 독립변수로 표준인지, 표준중요성인지는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표준활동의사는 종속변수로 모델 설정하여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공변량구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 문제를 도식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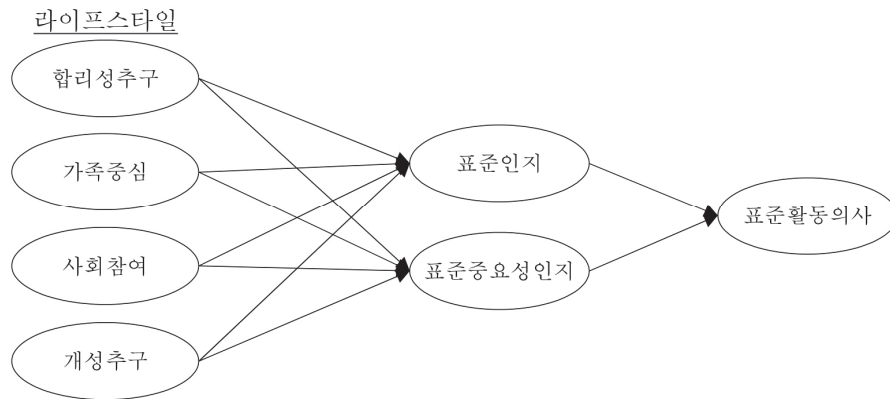


그림 1. 본 연구의 구조모델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로서 표준 관련 설문지에 대한 자기기입식 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지의 주요 조사 내용은 라이프 스타일, 표준인지, 표준중요성인지, 생활서비스표준 필요성 인식, 표준활동의사 등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예비조사는 2015년 8월 1일부터 15일간 30명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전 조사결과를 기초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는 2015년 8월 15일부터 한 달간 실시하였다.

3.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 스타일을 측정하기 위해 허경옥 등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총 12개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8]. 내적타당도 조사를 토대로 1개의 질문을 제외한 11개의 질문을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최종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 스타일을 요인분석의 결과를 참고하여 합리성추구, 가족중심, 사회참여, 개성추구의 4개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각 요인

의 내적 타당도는 .70을 넘어 적정하다고 하겠다.

표준인지, 표준중요성 인지를 측정하기 위해 표준학회, 허경옥의 연구를 참고하여 총 6개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7], [9]. 내적 타당도 조사를 수행한 결과 각각 Cronbach's α 값은 .87, .80이어서 내적 타당도는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일반 국민의 표준활동의사의 경우 표준 관련 정보 탐색, 표준교육 참여, 표준관련 행사나 표준제안 등 광범위한 범위에의 활동의사를 조사하였다.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표준활동의사는 3개 문항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개 질문항의 내적신뢰도는 .78로써, 3개 질문항간의 내적신뢰도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하겠다.

3.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Window 프로그램(version 22.0)과 AMOS(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실시하였다. 라이프 스타일과 표준인지, 표준중요성 인식, 표준활동의사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

표 3. 라이프 스타일 측정질문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변수	질문내용	평균	요인 적재치	Eigen (설명력)	Cronbach's α
합리성 추구	나는 합리적 선택을 하는 편이다.	3.65	.610	4.49	.82
	나는 대체로 정보탐색을 통해 의사결정한다.	3.53	.691		
	나는 모든 일에 계획을 선정한 후 이행한다.	3.29	.609		
가족중심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가정이 중요하다.	3.59	.732	1.51	.79
	나는 가족과 함께 놀러 나가는 것이 즐겁다.	3.73	.736		
	여가/취미활동은 가족과 같이 해야 한다.	3.58	.687		
사회참여	나는 사회문제에 대한 나 나름대로의 의견이 강하다.	3.52	.574	1.25	.65
	나는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다.	3.47	.667		
개성추구	보통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사는 편이다.	2.81	.647	1.06	.80
	나는 다른 사람들이 구매하는 것과 다른 것을 구매한다.	3.09	.797		
	나는 독특한 것을 좋아한다.	3.33	.702		

참조: 라이프 스타일 4개 요인의 총 설명력은 %임

표 4.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변수	질문내용	평균	Cronbach's α
표준인지	나는 표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3.56	.87
	나는 평소 표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다.	3.48	
	나는 표준에 대해 관심이 많다.	3.36	
표준중요성 인지	나는 표준이 기업경쟁력 달성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59	.80
	나는 향후 5~10년내 우리사회에서 표준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3.44	
	표준에 대한 충분한 지식/자질을 갖추게 하는 자격증제도가 필요하다.	3.61	
표준활동 의사	나는 표준 관련 활동에 관심이 많다.	3.63	.78
	나는 표준제안, 표준 관련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	3.82	
	나는 표준을 알기 위해 정보탐색을 해 보는 편이다.	3.28	

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t-test와 일원분산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였으며, 집단별 차이의 사후검증을 위하여 Duncan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라이프 스타일과 변수들의 구조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공변량 구조분석(Structural Covariance Equation Model)을 수행하였다. 공변량구조분석 수행에 앞서 측정변수들의 유형화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고, 측정척도의 타당도 평가를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총 582명으로 조사대상자 중 남성이 약 94%로 여성(약 6%)보다 많았으며, 결혼 여부도 기혼자(약 72%)가 미혼자(28%)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대졸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약 63%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도 25%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전문직 종사자는 약 12%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가 약 73%로 많았으며 전공의 경우 이공계열의 출신이 약 52%로 더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200만원~400이하가 약 48%로 절반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0만원 이하가 약 21%, 401~600만원 이하가 약 18%, 601만원 이상이 약 13%의 순으로 나타났다.

로 나타났다. 연령은 30대가 약 40%로 가장 많았으나 40대 약 34%, 50대 약 14%, 50대이상 약 12%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라이프 스타일 요인들의 평균은 합리성추구가 10.26점, 가족중심이 10.90점, 사회참여가 7.04점, 개성추구가 9.23점으로 나타났으며 표준 인지수준은 15점 만점에 10.40점, 표준 중요성인지는 10.64점이었다. 끝으로 표준활동의사의 평균은 10.05점으로 나타났다.

4.2 표준에 대한 인지, 표준중요성 인지, 표준활동의사의 차이 검증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표준

표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582)

변수	구분	N(%)	변수	구분	N(%)
성별	남성	261 (93.9)	결혼 여부	미혼	78 (28.1)
	여성	17 (6.1)		기혼	200 (71.9)
학력	고졸 이하	36 (12.9)	직업	전문직	27 (11.5)
	대졸(전문대포함)	174 (62.6)		비전문직	208 (88.5)
	대학원이상	68 (24.4)	전공	이공계열	131 (47.6)
거주 지역	서울 및 수도권	200 (72.7)		이공계열외	144 (52.4)
월평균 가계소득 (만원) (M=403.54, S.D.=336.47)	비수도권	75 (27.3)	연령 (M=39.48 S.D.=10.27)	20대 이하	33 (11.9)
	200만원이하	53 (20.6)		30대	112 (40.4)
	201~400만원이하	123 (47.9)		40대	94 (33.9)
	401~600만원이하	47 (18.3)		50대 이상	38 (13.7)
601만원이상	34 (13.2)	가족중심 (M=10.90, S.D.=2.37)		5점 이하	7 (2.1)
합리성추구 (M=10.26, S.D.=2.34)	5점 이하		8 (2.4)	6~10점	144 (43.9)
	6~10점		177 (54.0)	11~15점	177 (54.0)
	11~15점	143 (43.6)	개성추구 (M=9.23, S.D.=2.40)	5점 이하	19 (5.8)
사회참여 (M=7.04, S.D.=1.66)	5점 이하	37 (11.3)		6~10점	222 (67.7)
	6~10점	291 (88.7)		11~15점	87 (26.5)
표준인지 (M=10.40, S.D.=2.35)	5점 이하	7 (2.2)	표준중요성 인지 (M=10.64, S.D.=2.27)	5점 이하	6 (1.9)
	6~10점	165 (52.1)		6~10점	153 (47.9)
	11~15점	145 (45.7)		11~15점	159 (50.2)
표준활동의사 (M=10.05, S.D.=2.51)	5점 이하	10 (3.2)			
	6~10점	175 (55.2)			
	11~15점	132 (41.6)			

참조: 결측치(missing value)로 인하여 각 cell의 빈도합이 100%가 아닐 수 있음.

에 대한 인지, 표준의 중요성 인지, 표준활동의사의 차이를 t검증과 분산분석(ANOVA)을 통해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준에 대한 인지도는 성별, 전공에 따라 통계적으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이공계열 출신의 응답자가 비이공계열 출신 성인보다 표준에 대해서 더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중요성에 대한 인지는 가계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가계소득이 201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인 경우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 수준이 높았다. 표준활동의사의 적극성은 성별, 전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준활동의사는 남성, 이공계전공자의 경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3 측정모형 분석

4.3.1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의 측정변수가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는지를 파악하고자 1차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통해 걸러진 측정항목들에 대해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먼저 잠재요인의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은 첫째, 측정변수들의 요인부하량이 0.5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평분산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이 .50 이상이고 잠재요인

표 6. 표준인지, 표준중요성인지, 표준활동의사의 차이 검증

변수	구 분	표준인지			표준중요성인지			표준활동의사		
		평균	t/F	D	평균	t/F	D	평균	t/F	D
성별	남성	10.37	1.923*		10.66	.444		10.07	1.98*	
	여성	9.88			10.41			9.52		
결혼 여부	미혼	10.05	-1.275		10.42	-1.037		10.05	.049	
	기혼	10.45			10.73			10.03		
학력	고졸이하	10.36	.149		10.77	.393		9.94	.039	
	대졸(전문대)	10.39			10.70			10.04		
	대학원졸	10.20			10.44			10.08		
연령	20대 이하	10.39	1.091		10.72	1.485		10.66	1.228	
	30대	10.06			10.55			9.87		
	40대	10.48			10.46			9.88		
	50대 이상	10.78			11.34			10.39		
거주지	수도권	10.21	-1.244		10.60	-.565		9.99	-.526	
	비수도권	10.61			10.77			10.17		
직업	전문직	10.59	.436		10.59	-.269		9.74	-.737	
	비전문직	10.37			10.71			10.11		
가계 소득	200만원이하	10.03	1.366		10.54	1.96*		9.98	.214	
	201-400만원	10.64			11.96			10.17		
	401-600만원	10.27			10.27			9.87		
	601만원이상	9.85			10.41			9.94		
전공	이공계열	10.62	2.031*		10.83	1.347		10.32	1.95*	
	이공계열외	10.04			10.47			9.79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가 0.7 이상이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모델에서 사용한 잠재변인이 측정변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부하량(β)은 절대 값이 .50 이상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변수가 타당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집중타당성 검토의 또 다른 기준은 개념 신뢰도, 평균분산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인데 이들 수치는 <표 7>과 같다. 본 연구의 경우 개념신뢰도가 0.7보다 크로 평균분산추출값(AVE)가 대체로 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타당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개념 신뢰도(C.R.), 평균분산 추출값이 이 기준치에

약간 못 미치는 것이 발견되었으나, 모델의 적합도 부합지수, 표준람다, CR값,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공 등 다른 측정 항목에서 타당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에 적용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잠재변수들의 판별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해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평균분산추출값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판별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잠재요인 AVE 값 모두가 상관계수의 제공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잠재변수들의 판별타당도가 적정함을 알 수 있다.

표 7. 측정모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와 집중타당도 검증

항목		비표준화 요인부하(B)	표준화 요인부하(β)	t값	SMC	평균분산 추출값(AVE)	개념신뢰도 (C.R.)
합리성추구	합리1	.870	.799	15.662***	.639	0.631	0.831
	합리2	1.000	.775	-	.601		
	합리3	.662	.489	10.625***	.239		
가족중심	가족1	.800	.670	16.579***	.449	0.768	0.907
	가족2	1.000	.877	-	.769		
	가족3	.890	.796	19.742***	.634		
사회참여	사회1	1.088	.935	22.190***	.875	0.906	0.951
	사회2	1.000	.860	-	.740		
개성추구	개성1	.770	.588	13.029***	.346	0.689	0.867
	개성2	1.000	.851	-	.724		
	개성3	.958	.761	15.717***	.579		
표준인지	인지1	1.000	.854	-	.729	0.868	0.952
	인지2	1.054	.944	28.727***	.891		
	인지3	.871	.763	21.951***	.583		
표준중요성 인지	중요1	.899	.719	16.334***	.517	0.729	0.843
	중요2	1.000	.752	-	.566		
표준활동의사	활동1	1.000	.880	-	.775	0.826	0.934
	활동2	1.048	.894	27.968***	.799		
	활동3	.765	.708	19.749***	.501		

개념신뢰도(C.R.) = $(\sum \text{표준추정치})^2 / [(\sum \text{표준추정치})^2 + (\text{측정변수의 오차항})] \geq 0.7$
 평균분산추출값(AVE) = $(\sum \text{표준추정치}^2) / [(\sum \text{표준추정치}^2) + (\text{측정변수의 오차항})] \geq 0.5$

표 8. 잠재변수들의 상관관계와 판별타당성 분석

구성 변수	√AVE	합리성추구	가족중심	사회참여	개성추구	표준인지	표준중요성인지	표준활동의사
합리성추구	.79	1						
가족중심	.88	.523(.274)	1					
사회참여	.95	.514(.274)	.449(.202)	1				
개성추구	.83	.294(.264)	.416(.173)	.436(.190)	1			
표준인지	.93	.396(.086)	.418(.175)	.538(.289)	.384(.147)	1		
표준중요성인지	.85	.654(.157)	.502(.252)	.560(.314)	.286(.082)	.649(.421)	1	
표준활동의사	.91	.528(.428)	.509(.259)	.490(.240)	.349(.122)	.613(.376)	.877(.769)	1

참조: (p^2): 상관계수의 제곱값, p^2 가 AVE값보다 작아야 함.

표 9.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적합도	χ^2 (Chi-square)	df	p	CFI	GFI	AGFI	IFI	RMR	RMSEA
측정모형	627.630***	131	.000	.919	.899	.854	.920	.028	.081

4.3.2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측정 모형의 전반적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 합치수(GFI), 조정적합지수(AGFI), 증분적합지수 (IFI), 비교적합지수(CFI, 원소간 평균잔차(RMR), 모집단원소간 평균잔차(RMSEA) 등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기준부합지수는 GFI와 AGFI, CFI, IFI의 값이 기준치인 0.9 이상이고 RMR, RMSEA값은 기준치 0.08보다 작으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확인적 요인분석(CFA) 수행 결과인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수치인 GFI=.899, AGFI=.854, IFI=.930, CFI=.919, RMR=.028, RMSEA=.081 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모형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4 구조모형 분석 결과

라이프 스타일과 표준 및 표준중요성의 인지 수준

이 표준활동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공변량 위해 구조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0>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본 구조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 $\chi^2=698.424$, RMSEA= .084, CFI=.909, GFI= .892, AGFI= .849, IFI= .909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RMSEA는 .08에서 1.00 이하, NFI, CFI, GFI, IFI는 .90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평가하는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이 이 기준에 부합하고 있어 전반적인 적합도는 양호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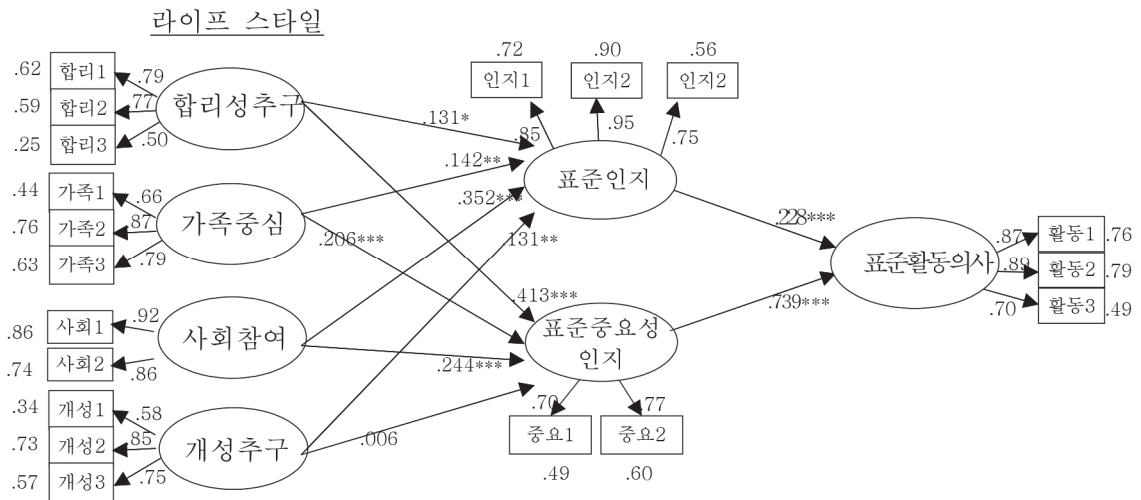
한편, 공변량구조 분석 결과를 잠재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첫째, 라이프 스타일의 모든 요인들은 표준인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합리성추구를 하는 국민일수록, 가족중심생활을 하는 국민일수록, 사회참여 생활을 원하는 국민일수록, 개성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국민일수록 표준에 대해서 더 많이 인지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라이프 스타일 중 개성추구를 제외한, 합리성추구, 가족중심, 사회참여 요

표 10. 본 연구의 구조모형 분석결과

경로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계수(β)	t값
합리성추구 → 표준인지	.126	.131	2.348*
가족중심 → 표준인지	.134	.142	2.709**
사회참여 → 표준인지	.350	.352	6.766***
개성추구 → 표준인지	.125	.131	2.732**
합리성추구 → 표준중요성인지	.375	.413	6.634***
가족중심 → 표준중요성인지	.182	.206	3.733***
사회참여 → 표준중요성인지	.229	.244	4.551***
개성추구 → 표준중요성인지	.005	.006	.117
표준인지 → 표준활동의사	.244	.228	6.148***
표준중요성인지 → 표준활동의사	.839	.739	14.204***

GFI=.892, AGFI=.849, IFI=.909, CFI=.909, RMR=.034, RMSEA=.084, Chi-square(df)=698.424(136)***

*p < .05, **p < .01, *** p < .001



p < .01, * p < .001

참조: 그림안 수치는 표준화 회귀계수로써 유의미한 경우만 화살표 표시함.

그림 2. 표준활동의사 영향요인 구조분석결과

인은 표준 중요성 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합리적인 생활을 추구할수록, 가족중심의 생활을 할수록,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클수록 표준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많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표준인지, 표준중요성인지는 표준활동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표준에 대해 더 많이 인지하고 있을수록 또한 표준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이 인지하고 있을수록 표준활동의사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소비생활 분야, 서비스 분야, 일상생활 분야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표준활동의사가 중요하다. 표준이 국민과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이용자 모두에게 공통의 규범을 제공하여 공정한 사회, 편리한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므로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기술 표준원에서는 수년전 부터 표준화추진협의회를 발족하여 국민이 생활 속에서 표준화에 대한 의견을 보다 쉽게 제안하고 이를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표준화 작업에 일반 국민의 참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어떤 사람이 표준활동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표준활동의사의 적극성에 영향 미치는 변수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표준에 대한 인지, 표준중요성인지, 표준활동의사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들 변수들 간의 영향력을 공변량구조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표준에 대한 인지 및 표준의 중요성 인지와 표준활동의사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남성, 이공계열 출신의 응답자가 표준에 대해서 더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이 201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인 경우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 수준이 높았다. 표준활동의사는 남성, 이공계전공자의 경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변량구조 분석 결과 합리성추구를 하는 국민일수록, 가족중심생활을 하는 국민일수록, 사회참여 생활을 원하는 국민일수록, 개성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국민일수록 표준에 대해서 더 많이 인지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합리적인 생활을 추구할수록, 가족중심의 생활을 할수록,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클수록 표준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 한편, 표준에 대해서 더 많이 인지하고 있을수록 또한 표준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많이 인지하고 있을수록 표준활동의사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표준지식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가족중심의 생활을 하는 국민일수록 표준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표준지식이 높은 집단에서 개성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대한 욕구가 많을수록 표준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표준지식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가족중심의 생활을 하는 국민일수록 표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저집단에서 개성이 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수록 표준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인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민간 국민이 적극 참여하는 표준정책의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표준활동의사는 표준에 대한 인지, 중요성 인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일반 국민대상 표준에 대한 인식제고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민간대상 표준관련 홍보, 정보제공, 교육을 통해 민관의 협력적인 표준 컨소시엄 활성화, 국제 표준 개발 등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표준관리에 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정립하여야 하며 표준의 가치증진과 파트너 십 강화, 표준의 이용자 요구에 부합, 표준과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표준과정에서 민간의 역량과 참여를 강화, 표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및 참여유도, 표준의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이 중요하다.

둘째, 민간인, 민간 전문가의 표준참여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표준개발·확산, 표준화 경제적 효과 분석, 국제 표준화 활동전략 등 표준정책의 연구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회, 동호회 등의 설립을 지원하고, 표준 제정단계에서 민간의 의견수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털을 구축하여 자유로운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준화 포럼 활성화를 위한 웹 포럼 등을 개설하여 많은 이해 관계자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생활서비스 및 표준제정 단계에서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털을 구축하여 자유로운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활서비스 표준화 연구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웹 사이트 등을 개설하여 많은 수요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표준제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나 무엇보다 표준 관련 정부 기관 및 협회 등이 일반국민의 참여방법에 대한 홍보 확대, 일반 민간의 표준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표준인식고취 등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표준에의 국민참여 촉진을 위해 국민제안 발굴 시스템 구축 및 홍보, 민간 표준 개발위원회 등 조직체 운영, 대국민 홍보, 표준화 관련 행사나 이벤트에의 대국민 관심유발, 온라인 국민제안시스템 홍보 및 적극 활용, 표준화 성과 분석 및 결과공개 등이 필요하다.

많은 국민이 표준이라는 개념조차도 생소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일반 국민의 표준에 대한 인지, 표준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 표준 관련 활동의사를 조사하여 향후 민간 중심의 표준정책 수립 및 이행에 기초정보를 제공하였다고 기대한다. 앞으로도 표준

의 최종 수요자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표준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 분석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한국표준협회. KS인증의 세계화 고품질화 방안. 연구보고서. 2004.
- [2] 심준섭, 김지수, 윤태섭. 국민행복표준의 경향 및 사회적 논의에 대한 분석. 국가정책연구, 28(3), 265-298. 2014.
- [3] 강병구. 기업의 표준경영 이행확산을 위한 기반조성. 국가기술표준원 용역보고서. 2011, 2012, 2013.
- [4] 이희상. 국가표준화 기본 원칙 정립 및 타당성 도구 개발. 국가기술표준원 용역보고서. 2011.
- [5] 현완순. 국제표준인프라협력 - 인력양성 경험 전수를 위한 방법론 및 콘텐츠. 한국표준협회 용역보고서. 2012.
- [6] 김유겸. 표준전문가 인증제도 실시를 위한 표준 콘텐츠 개발. 국가기술표준원 용역보고서. 2011.
- [7] 허경옥. 소비자표준현황 및 수요조사와 소비자표준정책의 활성화방안 모색: 소비자, 기업,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26(2), 1-20. 2015.
- [8] 허경옥.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점포선호 및 만족도의 차이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5(6), 385-395. 2006.
- [9] 표준협회. ISO/KATS 개도국 표준교육 공동워크숍 및 ICES/WSC 컨퍼런스참석 결과보고서. 2012.

